

광산구, 노동·산업 전문가들과 정책포럼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민선8기 역점 시책인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5일 오후 3시부터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열리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해 노사민정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첫 논의의 장이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로...왜? 어떻게?'를 주제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힘을 보

탤던 주역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병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노동자, 시민단체 등 광산구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인사 100여 명도 참석한다.

토론은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좌장을 맡고, 공병

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 윤영현 광주 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명동용 전 국회 노동정책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는 기업에 적용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광산구 지역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격이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사회임금을 제

공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이번 포럼에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특구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실현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다양한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이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남구 양림동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 한끼 2천원 무한리필·음료 1천원 판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양림동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에 한끼 2천원에 무한리필 식사를 제공하는 파순밥집과 각종 차를 1천원에 판매하는 공방찻집이 문을 열었다.

특히 양림동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지난해 창립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가리파스 수녀회에서 파순밥집 아궁이와 공방찻집에 군불을 때우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에 사람의 온기도 더해지고 있다.

남구는 "힘들고 지친 청년들, 지역 주민들이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파순밥집 공간을 2년간 무상 제공하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 2층에 문을 연 파순밥집은 양림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가리파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가리파스 수녀회 소속 수녀들께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몸담으면서 지역사회 공헌 일환으로 파순밥집을 마련한 것이다.

이곳 식당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재료 소진때까지 문을 열어, 수익 창출을 위한 식당이 아닌 만큼 매일 80인분에 한해 한끼 식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양림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가리파스 수녀회에서는 파순밥집 아래층인 1층에 주민공유 공방찻집을 마련, 각종 음료를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휴식이 필요한 청년 및 주민들에게 파순밥집과 공방찻집 공간을 내주고, 이곳에서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기 위해서다.

남구는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를 통해 식기세척기, 냉장고, 테이블,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하고, 양림동 특화상품 피칸 호두과자 제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서기만 기자

서구 종이 상자 케이스 도입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기후위기대응1번지 녹색서구 구현을 위해 기존의 두꺼운 우단 및 고급 상자 케이스 대신 종이 케이스를 활용한 상자 케이스를 제작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협약식, 위촉식, 시상식 등에 사용하는 상자 등의 케이스는 두껍고 재활용이 어려워 쓰레기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이에 서구는 지난 7~8월 실시된 서구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촉장 및 수료장 상장을 종이케이스로 사용하기" 제안을 채택했으며

종이 케이스를 제작한 후 11월부터 부서 내에서 추진하는 협약식, 위촉식 등에서 위촉장 및 수료증을 수여 시 케이스로 활용하고 있다.

종이 상자 케이스는 단가가 저렴해 3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서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케이스 사용을 전 부서로 확대·권고해 청사 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배려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감(減)탄 서구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동구만의 특색있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기획·출시한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이 직접 '여행자의 ZIP(집) ZPTI 키트 체험 라운딩'에 나섰다. /동구청 제공

임택 동구청장, ZPTI 키트 체험 라운딩 나서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동구만의 특색있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기획·출시한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이 직접 '여행자의 ZIP(집) ZPTI 키트 체험 라운딩'에 나섰다.

임 청장은 최근 동명동 여행자의 ZIP(집)을 방문해 체험형 여행 패키지 'ZPTI' 안내를 받고, 나의 여행 유형 찾기에서 마음에 드는 4개의 미

션카드를 선택했다. 미션카드 뒷면에 기록된 여행유형(ENTJ)에 맞춰 나만의 키트와 소품을 골라 본격적인 미션 수행에 나섰다.

ZPTI 키트에는 미션·명소카드, 미션 완료 스티커, 유형카드, 지도, 포토카드, 유형 그림책과 함께 휴대용 인화기와 인화지를 대어할 수 있다. 미션 수행에 앞서 동명동 맛집을 둘러 점심 식사를 마친 임 청장

은 오후 1시부터 동명동 카페거리, 자산유원지 리프트카와 모노레일 탑승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공원과 충장로 K-POP 스타거리 인증샷을 남겼다.

여행자의 ZIP의 'Z'와 'P', MBTI의 'T'를 결합한 'ZPTI' 참여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사전 예약 및 현장 신청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북구, 행정정보화 추진 우수기관 선정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안부 장관 표창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 및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개선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북구는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데이터 기반의 주민편의 정보 제공 등 행정 정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한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스마트 대면보고 시스템 구축 등은 업무처리 효율 향상과 예산 절감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 ▲구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운영 ▲영상회의 시스템 활성화 ▲주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행정 정보화를 고도화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과 활성화에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보화 분야 선도적인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상자료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회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정차 '땀방'...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진실은 이렇습니다 No!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회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